

화순군, 소득 상위 12%에도 코로나 국민지원금 준다

광주·전남 첫 '보편지급'...군민 3,900여명 대상 자체 예산 9억7,800만 마련...내달부터 지급 시작

화순군 모든 군민이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소득하위 88% 선별지급' 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정부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이와 관련 구충근 화순군수는 "코로나 19로 생계 위기 등 고통을 함께 감내해온 군민을 위로하고 정부 지원 제외 군민의 소외감을 고려해 모든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909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화순군민 전체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 9억7,800만 원은 예비비에서 활용된다. 화순군은 정

부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10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종이형,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원금 신청, 지급 장소 등 계획은 추석 연휴 이후에 확정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의 보편지급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화순군이 처음으로 '전 군민 100% 지급'을 추진한다.

그동안 화순군은 빠르고 높은 코로나19 예방 집중력과 선제 방역, 과감하고 신속한 민생·경제 방역으로 호평받았다.

대표적인 민생·경제 방역 지원 대책이 지난해 군 자체 예산으로 전 군민에게 지급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총 지급액 123억4,700만 원),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79억2,400만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33억6,700만 원), 지난 4월 정

부의 선별지원에 자체 지원한 농어민 재난 지원금(8억6,270만 원)이다.

구충근 화순군수의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과 추진력 등이 크게 작용한 대책이다. 구 군수는 사회재난 피해의 보편성, 재난 취약계층, 주민 수용성, 지원의 효과성, 예산 균형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직접·보편지원'을 추진해 왔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고려됐다. 지원금은 모두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도 생기가 들었다.

국민지원금 보편지급과 함께 전라남도와 함께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지원금도 지원한다. 총 4억9,200여만 원을 지난 15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자영업자 경영회복, 소비촉진, 취약계층 생계, 방역물품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분해 15개 사업은 현금, 5개 사업은 방역물품을 지급한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크게 위축돼 취약계층은 소득 절벽과 생계 불안에 겪고 모든 분야의 피해가 가중돼 분야별 대책은 물론 보편지원도 필요하다"며 "민생과 경제 안정에 직접 지원이 더 실효성 있고, 감염병과 민생·경제 방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이어 "어느 계층보다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단비가 되고 골목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민생안정, 경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민생안정, 경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최근 장성군민 18명이 꽃차 마이스터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 '꽃차 전문가' 18명 교육 이수

장성군민 18명이 꽃차 마이스터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장성군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꽃차 마이스터 자격증반 수료식을 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꽃차 전문가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꽃차는 꽃을 원료로 한 차(茶)로, 꽃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향기와 빛깔을 지닌다. 이번 꽃차 마이스터 자격증반 과정에서는 꽃차의 특성과 만드는 법, 마시는 법부터 꽃차 블렌

딩, 시럽·음료 제작에 이르기까지 꽃차에 관한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됐다. 지도는 송희자 꽃차문화진흥회장이 맡았다.

교육 기간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총 10회의 강사가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18명의 장성군민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해, 꽃차 관련 창업 및 교육이 가능해졌다.

유두석 군수는 "장성 최초로 배출된 꽃차 전문가들이 식물 자원을 활용한 꽃차 산업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화순 삼천교 복구·재가설 추진

72억 투입 이달 중 착공

화순군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삼천교 복구, 재가설 공사를 추진한다.

군은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 중앙 설계단계 사전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하며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안에 착공해 내년 장마철 이전 준공이 목표다.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 길이 96m, 폭 18.5m의 교량을 재가설하고 99m의 접속도로를 개선한다.

8m이던 다리 폭을 18.5m로 늘려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게 돼 교통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삼천교는 길이 96m, 폭 8m의 다리로서 지난 1991년 준공 이후 30년간 화순읍과 생물의약산업단지·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로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급류로 인해 교량이 파손되면서 개선복구 대상 시설로 확정됐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이번 공사가 완료 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이용객들의 통행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농가에 보탬되도록 역할 다할 것"

나주 이필호 농촌지도사, 시설원예기술자격증 취득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근무 중인 이필호 농촌지도사(사진)가 최근 시설원예분야 전문가로 공인받은 '시설원예기술사' 국가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해 공직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22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설원예기술사는 시설하우스·유리온실 등에서 재배되는 작물과 시설·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구, 평가하는 이 분야 최고 자격증이다.

이필호 지도사는 전남대 원예학과 졸업 후 고향인 나주에서 7년여 동안 시설원예에 농사를 지어오다 2005년 농촌지도사로 임용됐다.

그간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분센서를 활용한 자동관수 시스템, 탐프루트 프로젝트,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등 새로운 기술·사업 보급과 아열대채소 및 NON GMO 유채 시범재배 등을 담당해왔다.

이 지도사는 "결에서 응원해준 가

족과 동료직원들,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도록 도움 준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도사는 "자격증 취득을 계기로 시설원예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 본인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 지도사뿐만 아니라 나주시에는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도사가 3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지도사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승 기자

영광, e-모빌리티 특화 용역 보고회

영광군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지식산업센터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일원에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 293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지상 4층 연면적 1만 2,037㎡ 규모로 기업입주공간(47실), 전시설, as센터, 운영사무실, 창작스튜디오, 식당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용역보고회는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체제를 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타 지자체 및 유사시설 사례분석 및 운영수지 분석을 통한 위태 또는 직영 시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유사시설 사례 및 지역현황 등을 고려한 운영비 및 임대료 산정 금액 등을 제시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나주 금라회, 백미 160포 기부

나주시가 최근 강진구 시장을 비롯한 금라회 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 원 상당의 백미 160포 기탁식을 가졌다. 금라회는 매년 설·추석 연휴 전 홀몸노인 등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백미를 기탁하고 있다.

지난 해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생활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내춘 농협나주시지부장은 "코로나 19 여전히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오고 있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늘 건강하게 지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주)죽전디엔씨, 이웃돕기 쌀 기탁

(주)죽전디엔씨(대표 최운석)가 최근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담양군에 300포 기탁에 이어 고서면에 60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200포를 기탁했다.

기탁된 백미는 독거 어르신 등 저소득층 2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운석 대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속적으로 감염 확산에 따라 소외계층의 정서적 외로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랑 실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덕주 고서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한 마음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물품은 따뜻한 한가위를 위해 이웃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

(주)덕양, 장흥군나눔복지재단에 성금 전달

(주)덕양 이연정 대표가 최근 장흥군나눔복지재단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연정 대표는 장흥군과 강진군에서 소방시설관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로 지난 2019년에도 3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역에서 신뢰 받고 이웃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려는 기쁨을 이어받아 항상 주변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젊은 사업가가 있어 든든하며 자랑스럽다"며 "기탁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